

플라스틱산업 공동화는 시간문제!

CMRI 설문조사, 높은 인건비와 노동시장 경직성 ... 중국이전 가속화

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과 맞물려 화학산업의 중국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, 플라스틱 가공업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.

또 화학산업 공동화 현상은 국내 화학기업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내수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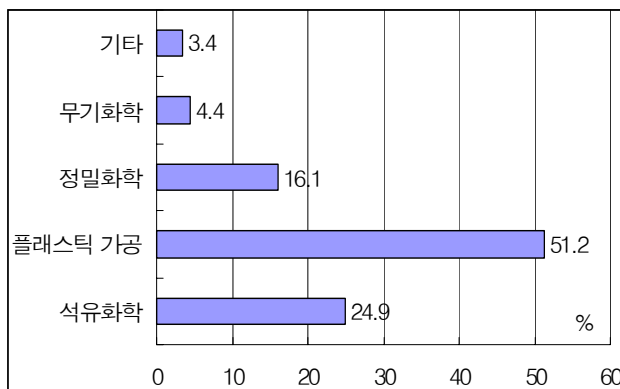
화학경제연구원(원장 박종우)이 10월7일부터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화학산업 종사자 2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, 화학산업 가운데서도 플라스틱 가공업의 중국 이전이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조사됐다.

먼저, 최근 잇따른 화학기업 및 화학 관련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원인을 묻는 질문에 <높은 인건비 및 경직된 노동시장> 때문이라는 응답이 42.0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<화학기업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화>와 <인건비 및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한 원가절감>이 각각 21.0%를 차지했다.

화학관련 업종 중 산업 공동화 현상이 가장 심각할 우려되는 분야는 화학섬유가 38.8%로 가장 높았으며, 신발, 가구 등 소비재 분야도 36.4%로 조사됐다. 그러나 전기전자 및 관련부품은 17.0%, 자동차 및 관련부품은 5.8%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.

산업 공동화로 인한 부작용으로 화학산업 중 플라스틱 가공업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는 예상이 절반 이상인 51.2%를 차지했으며, 석유화학 24.9%, 정밀화학 16.1%, 무기화학 4.4% 순으로 응답됐다.

공동화 현상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업종은?



화학 관련산업의 해외진출로 화학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<국내 근로자들의 일자리 박탈>이 50.0%로 가장 우려됐으며, <내수시장 불안정>을 선택한 응답자도 38.7%나 됐다.

반면, 화학기업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<생산 기지의 현지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화>가 50.0%, <해외 저가 노동력 활용에 따른 생산비 절감> 39.7%, <화학기업의 해외투자 촉진> 5.9%, <안정적 수출시장 확보> 4.4% 등이었다.

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때 가장 적합한 투자지역으로는 중국이 80.4%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, 동남아시아 17.2%, 남미 2.0% 등이었다.

또 해외이전 투자 적합지역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을 시장성장성으로 꼽은 응답자가 47.3%나 돼 대다수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해 곧바로 판매까지 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<낮은 인건비 및 투자비> 33.2%, <물류 등 SOC> 11.2%, <관련산업의 진출 여부> 7.3% 순이었다.

해외공장 진출 때 적합한 투자형태로는 60.3%가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선호했으며, 단독투자(12.8%)나 국내 관련기업과의 합작투자(8.8%)보다는 다국적기업 또는 투자기관과의 컨소시엄(18.1%)을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10/15>